

31

침례, 구원받은 후 첫 순종

롬 6:1~13, 벰전 3:21

찬송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144장 (나의 안에 거하라)



1. 침례는 구원받은 이후 주님께 대한 첫 번째 순종임을 압니다.
2. 침례를 받는 이유와 의미를 압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노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게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롬 6:3~7)



을 이해하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종으로 주님은 침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침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 침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과 마귀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둘째,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뜻하고, 물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뜻합니다.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살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며, 순종의 표시입니다.

‘침례’에 해당하는 영어인 ‘뱃타이즈’(baptize)는 헬라어의 ‘뱃티조’(baptizo)를 음역한 것으로, 그 뜻은 ‘담그다, 잠기다, 물 속에 넣다.’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의 올바른 방법은 침례를 받는 사람의 몸을 완전히 물 속에 담그고 잠기는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
는 것이라 (벧전 3:21)

There is also an antitype which now saves us baptism (not the removal of the
filth of the flesh, but the answer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1 P 3:21)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②

물과 침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①

침례(세례)의 뜻을 적어 봅시다.

②

구원받은 사람은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3

침례 받을 때의 올바른 마음가짐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표시해 봅시다.

죄의 고백	부끄러움	죄를 숨김	순종		
복종	슬픔	회개	믿음	용서	사랑
소망	분노	애매모호	심란함	기쁨	절망

4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롬 6:4). 나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적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마 28:19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의

막 16:16

화

행 1:5

↑

롬 6:4

↑

갈 3:27

↑

엡 4:5

↑

골 2:12



종교적 의식으로 그리스도인을 만들지는 못한다

“...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

어떤 목사님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벌써 수년 전에 아무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분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명하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차구니 없게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종교의식에 의해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오류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의식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있어요~



천년왕국 끝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 20:7~10)

그 천 년이 차면 무저갱에 가두었던 사단을 잠깐 내어 놓습니다(계 20:7). 그러면 그 사단이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들은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동안 사단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사단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 편에 선 사방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사단을 따르던 자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넣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처음 하늘과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상 끝까지 전해져 왔으며 마침내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져선 안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는 아직도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 희생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희생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 없이는 복음은 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고귀한 희생과 우리의 값진 희생으로 더욱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헌금 생활

헌금은 우리의 작은 희생이지만 복음 전파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귀히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고, 하나님의 일에 매우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 화목, 하나님의 부락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부탁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한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는 가운데 이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침례, 구원받은 후 첫 순종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침례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물에 잠기고 나오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리 활동



다음 활동 중에서 선택하여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마인드맵 / 성경 속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 단원 내용을 활용한 전도 편지
신문 기사 / 등장 인물의 일기 / 티셔츠 디자인 / 4컷 만화 / 캘리그래피
광고 / 포스터 / 성경 퀴즈 만들기 / 낱말 퍼즐 만들기